

# 정읍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10년 준비

### 전북연구원과 함께 연구 용역... 지속 성장 마련 나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실현 미래비전 수립 착수

정읍시가 전북연구원과 함께 향후 10년간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에 나섰다. 정읍시는 2일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실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 수립과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읍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 연구진과 함께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자문회의, 관계 공무원 워크숍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간보고회와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는 등 용역수행 단계별 점검과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 용역은 올해 9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용역을 통해 정읍시가 지닌 성장 잠재력을 표출시키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면서



정읍시는 최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진섭 시장을 포함해 부시장과, 국·단·소장, 연구진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정읍시 제공)

지속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국가와도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실행력이 높은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시, '남원부각' 지역대표 특산물 육성

### 창업지원 교육과정 신설

남원시가 '남원부각'을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한다.

남원시는 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과 함께 남원 부각의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창업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남원 전통식품 창업교육'은 한식 전문 교육기관 국제한식문화재단(국제한식조리학교)과 협업을 통해 12명을 교육, 7명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부각에 대한 이해와 제조, HACCP 인증부터 회계 관련 교육까지 장

업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춘향떡 부각' (남원부각 공동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남원부각을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집중 지원해오고 있다. (사진)

또 농업회사법인(주)꾸러미가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노암산단단지(3지구) 7810㎡ 부지에 총 70억원을 투자, 2020년 상반기까지 김부각 생산시설을 구축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부각은 지역 15개 전문 기업체와 가내수공업 형태의 150여 곳에서 생산, 국내 유통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군산시, 상수도 우수율 85% 목표 600억원 투입

### 2023년까지 노후관 정비

군산시가 2023년까지 5개년 간 총 600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우수율 85%를 달성할 계획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해 최근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군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 노후 상수관 교체, 누수 탐사와 복구, 관망 정비 및 실시간 유량 감시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10억을 투입해 불량관(73km) 교체, 상수도누수탐사, 상수도블록구축시스템 75개 블록을 구축했다.

또 상수관망 실시간연계설계를 통해 상수도 시설물 개선사업실시도 2017년 67%에서 2018년 69%로 전년대비 2%상승 우수율 개선실적을 올렸다.

이 사업으로 현재 69%에서 85%로 우수율을 올리고 수돗물 생산비용 감소가 시설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 감칠맛 나는 흑산 홍어 맛보러 오세요

### 10·11일 흑산도 홍어축제

홍어축제가 흑산도에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지역적 특색을 가진 홍어를 소재로 한 이번 축제는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 해상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홍어회 비빔밥 만들기,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연다.

흑산 홍어 가요제, 수산물 짬뽕 경매, 객석 참여 한마당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흑산도 현지에서 홍어 특유의 찰지고, 감칠맛 나는 회와 삼합 등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축제장 주변 상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홍어 음식 외에 우럭, 전복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수산물 상품과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다.



흑산도 인근 해역은 검푸른 물색으로 수심 80m 이상이며, 바닥층은 갯벌이 잘 형성돼 국내 홍어 서식처 중 홍어 산란장, 회유장으로는 최적의 장소다.

현재 흑산도 홍어잡이 배는 6척이며 200여을 잡아 45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산안=이상선 기자 sslee@



## 곡성기차마을 '청년챌린지마켓' 활기

### 저렴한 점포 임대료 등 지역 청년창업 '숨통'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이 새롭게 조성된 '청년챌린지마켓'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

2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도전하는 청춘은 빛나리'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챌린지마켓을 준비해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챌린지마켓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 유휴 공간에 조성된 청년점포다. 월 3만9000원의 저렴한 임대료에 창업자본이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숨통이 돼주고 있다.

군은 마켓 조성과 운영을 위해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현재 챌린지마켓에는 모두 4곳의 청년점포와 1곳의 쉼터가 준비돼 있다. 판매품목은 주로 테이크아웃 형태의 간편 먹거리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일순이국수'는 3000~4000원대 국수와 고소한 주먹밥을 판매하고 있으며, '학수고대'에서는 2000~3000원대의 맛갈스런 11종의 핫바로 어른과 어린이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 '단미'에서는 곡성의 특산물인 토란을 주재료로 머핀, 쿠키, 마들렌, 마가롱, 다쿠마롱 등을 1500~5000원대에서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 청년점포 야시장 먹거리타운을 운영해 청년챌린지마켓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외, 일자리 감소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창업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매매 - 1억 4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

- 3.3㎡당 25만원,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